| 현불 논단 |

조계종, 이제 직할교구 分區를…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교구제, 역대 총무원장 핵심 공약
원행 스님도 '교구중심제' 제시해
분권화보다 중심제가 진일보 종책

교구 간 불균형 해소가 우선 과제
직할교구에만 620여 사찰 소속돼
최하위 교구 비교하면 13배 차이
직할 비대는 종단 운영 장애요인

강북-조계 · 강남-봉은 본사로 두고
필요하면 인천 · 강화도 분리시켜야

교구제는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교구중심제'는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주요 종책이다. 중앙이 아닌 교구가 종무행정의 중심이 되어 종단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1994년 개혁불사 이후 중앙의 권한이 상당 부분 교구로 이양되어 교구분권화가 이루어진 조계종이 이제는 그 분권화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구들이 종단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중심제는 교구분권화에서 진일보한 종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교구중심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교구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우선 고민하여야 한다. 교구 간 균형성장이 이루어져야 교구를 중심으로 종단 전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직할교구와 각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23개의 지역교구들로 조직되어있다. 조계종의 전체 사찰 수는 3100여 개이고, 전체 스님 수는 1만2천여 명이다. 그 중 직할교구에 620여 개의 사찰과 3100여 명의 스님이 있다. 전체의 사찰 수와 승려 수 대비 직할교구가 공히 2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직할교구의 사찰 수와 승려 수를 2순위인 교구 그리고 최하위 순위인 교구와 비교해보면 직할교구의 비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직할교구 다음으로 사찰 수가 많은 교구는 14교구(범어사)로 230여 개의 사찰이 있으며, 승려 수가 많은 교구는 12교구(해인사)로 1500여 명이 있다. 직할교구가 사찰 수와 승려 수에 있어서 2순위인 교구들과 비교해볼 때, 각각 약 2.7배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사찰 수와 승려 수에 있어서 직할교구와 제일 규모가 작은 교구를 비교해보면, 보다 더 극명하게 교구 간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사찰 수와 승려 수가 제일 적은 교구는 23교구(관음사)다. 23교구에는 48개의 사찰과 85명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다. 직할교구가 사찰 수와 승려 수에 있어서 사세(寺勢)가 제일 작은 23교구에 비하여 각각 약 13배와 36배 정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할교구가 여타의 교구에 비하여 비대한 이유는 수도인 서울에 많은 수의 스님과 사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로의 쏠림 현상은 종단이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할교구의 비대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종단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구와 인력의 과밀은 불가피하게 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교구 간 불균형 문제의 공감을 전제로 하고 직할교구의 분구를 고민한다면, 서울의 지리적 여건상 분리가 편리한 강남과 강북으로 획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면, 강남은 봉은사를, 강북은 조계사를 교구본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북의 조계사는 현재와 같이 교구본사로 두고, 강남에는 봉은사를 교구본사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과 강북으로 직할교구를 분구하여도 그 비대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다소 구역의 획정이 복잡하더라도 인천 · 강화지역을 별도로 수도권을 3개의 교구로 분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음산책

올해 좌우명은 '소욕지족'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나는 매일 2층 복도에서 걷기명상을 한다. 걷기명상의 마무리는 자연의 결정체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다. 오늘도 짙은 남색의 바다가 뚜렷하길 바라면서 먼 산등성이 너머를 바라본다. 바다는 보이지 않고 희뿌연 하늘만 그 자리를 덮고 있다.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곳에 있다. 그보다 가까운 하늘과 산이 맞닿은 곳, 산등성이에는 나무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산과 물, 나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평화롭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신문을 펼쳐본다. 지면을 메우고 있는 세상은 온통 탁하고 거칠기만 하다. 조금 전 고요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우울해진다. 때로는 분노도 일어난다. 한 순간에 내 마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와 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기쁨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기쁨으로 왕래한다. 그러한 마음을 보면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불안이나 우울 쪽으로 더 가까이 가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만나서 즐겁기보다 바깥세상의 즐겁지 않은 대상들로 인해 마음은 우울해진다. 사회는 화합보다 분리되어 서로 다투고, 더 많이 소유하고, 경쟁하며 이기고 승리하려고 애쓴다. 어떻게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적절하게 불편함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나는 기해년을 맞이하면서 좌우명으로 '소욕지족(少欲知足)'을 택했다. 나를 소중히 여기되 나를 넘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었다.

그런데 소욕지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지속되어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도,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우리가 순간을 만나지 못하니 그 자리에는 과거나 미래가 들어와 자리를 메운다.

〈육조단경(六祖壇經)〉은 이렇게 말한다. "이 순간에는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적인 평화이다. 여기엔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쁨을 놓친다. 그 원인은 우리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만나려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치 마룻바닥의 널빤지 사이에 틈이 있으면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듯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잡념이 끼어든다. 그 틈으로 힘들었던 과거가 끼어들거나 힘들지 않을 미래가 끼어든다. 어떠한 감정이든 그것은 현재를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도 불안하고 우울하며 긴장상태를 보임으로써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때로는 슬픔에 빠지거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상태가 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부정적 감정의 편향성(Negativity Bias)이라고 한다. 불쾌한 경험은 유쾌한 경험에 비해 쉽게 기억되고 오래 저장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면서 괴로움을 낳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방황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명상수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 창가로 간다. 눈을 들어 머리 위를 바라보니 하늘은 더 맑고 파랗다. 내 마음은 금방 평화롭고 고요하다. 이처럼 평화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社 說

안전장치 절실한 직능대표 선출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가 현행 선거법을 제정하며 삽입한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전문성 조문이 삭제됐다. 25년 전, 개혁회의는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대의기구라는 명분 아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율원 · 선원 · 강원 · 교육 · 포교 · 사회 · 복지 · 문화 · 법제 · 행정 등 10개 분야에 각각 2석씩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의미 있는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성 조문 외에 특별한 기준이나 검증절차에 대한 명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능대표 선출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어느 때는 "강원 안 나온 스님이 어디 있고, 절에서 교육 포교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느냐"는 잣대를 들이 밀었고, 다른 때는 "구체적인 경력사항 없이는 직능대표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고무줄 기준'으로 선출했다.

이는 총무원장이 4명,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각 2명, 중앙종회서 선출한 6인이 각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결국 특별한 경력이 검증되지 않아도 종책모임의 입김에 따라 당선이 확정되면서 '계파 간 나눠먹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전문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하나의 문제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종회의원들이 25년 전 개혁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나눠먹기'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포교, 지역 연계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미래로 일컬어지는 청년포교, 그 중 핵심인 대학포교 현장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남대를 비롯해 다양한 대학의 불교학생회에서 신입회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남대의 경우 최근 63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여자간호대도 23명의 신입회원이, 경북대도 12명이, 중앙대도 약 30여명이 가입했다. 이처럼 대학포교의 약진 속에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접근한 포교방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동아리방을 제공하는가 하면, 학번이나 기수가 강한 대학에서 수평적인 나이 기준의 소모임을 구성하는 등의 친절한 배려를 시작한 불교동아리들이 늘었다. 여기에 명상과 스님들과의 상담 등을 더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러한 대학 불교학생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불교계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불교계 데이케어센터와의 연계가, 그리고 전남대의 경우 지역신행단체와의 연계가 학생들로부터 열띤 반응을 이끌었다.

사찰과 불교학생회가 연계해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찰 신도회 내에 대학 불교학생회를 후원하기 위한 별도의 후원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선배들과 지역사찰 신도회 등이 함께 연계된 불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고 한다. 300만 불자 감소의 이면에는 청년불자층의 이탈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포교의 약진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국의 각 사찰과 단체들은 새롭게 움트고 있는 대학불심을 향해 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